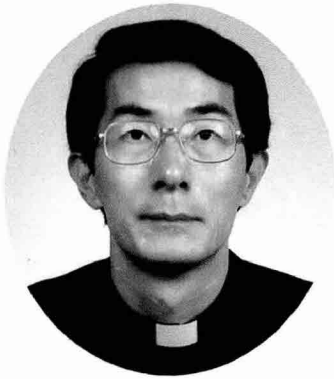


호스피스와 사랑의 예술



주 경 수
(한국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지도신부)

며 칠 전, 오랜만에 바이올린 독주회를 다녀왔다. 평소에 거의 음악회나 연주회를 가볼 기회가 없었지만, 특별히 그 독주회는 30년넘게 소식이 끊겼던 국민학교 동창이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보기로 약속했었다. 1시간이 넘는 연주시간이었지만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연주자의 열연이 돋보였다.

연주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몇가지 묵상거리가 떠올랐다.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조화, 완전히 자신의 연주에 몰입되어가는 연주자들의 정열적인 몸짓, 숨소리를 죽여가며 연주를 감상하는 청중들의 경청의 자세……

연주자들은 단지 악보만을 보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자신의 감정과 영감을 음악 속에 불어 넣으며 연주를 하였다. 그들은 단지 기술적인 기교 뿐만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쏟는 예술가다운 근성이 그 연주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다. 자신의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이들의 음악세계는 자신의 음악을 한낱 직업 수단으로 삼는 이들의 음악 세계 하고는 그 내용과 깊이 면에서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다. 예술(Art)과 기술(Technique)의 차이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세계적인 예술가나 밤무대의 악사나 악보를 읽고 연주할 수 있는 기교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지만, 청중을 사로잡는 연주자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영혼의 울림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것이다.

호스피스 역시 여기에다 대입시켜 보면 한

두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의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은 전문 기술적인 영역에만 너무 치우친 듯 하다. 호스피스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할 호스피스의 철학과 영성적인 측면을 다른 기술적인 측면에 비해 다소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호스피스 활동의 중심을 어디에다 설정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모습은 호스피스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재창조하는 사랑의 예술가(Artist)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정신없이 바빠 돌아만 가는 자동화공장의 기술자(Technician)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술가들의 연주나 작품을 대하노라면 좀 더 훌륭한 연주와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예술가들의 창조적인 고뇌가 느껴지곤 한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상’에는 그발등에 기다란 흠집이 나 있다고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그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모세상의 발등을 조각칼로 긁으면서 이렇게 절규했다고 전해진다. “너는 왜 말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 예술가의 절규에서 차가운 돌일지라도 그 속에 따뜻한 생명을 불어 넣고자 했던 위대한 예술가의 고뇌의 흔적을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 넣고자 하는 우리들 안에

서의 창조적인 고뇌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외국의 한 호스피스병실에서 10살의 토마스 골딩(Thomas Golding) 어린이가 느꼈던 호스피스의 의미를 묵상해보면서, 호스피스 환자들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재창조하려는 ‘사랑의 예술가’들로서, 끊임없는 창조적인 고뇌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호스피스 자리를 새로이 모색해 보기로 하자.

“A place to die, A place to find peace,
A Place to find oneself,
A Place to see love,
A Place to see kindness,
A Place to find time,
A HOSPICE”

